

우루과이의 2009년 대선, 양당제 파기 확립

파올라 가요

작은 나라의 약간의 역사

내 조국은 우루과이라는 작은 나라이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대화 상대의 당황한 시선 앞에서 내 조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광대한 세계지도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운 좋게 우루과이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알아맞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과라니 어 어미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이웃 국가인 파라과이와 혼동하는 경우가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우루과이의 지리적 위치를 완전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항상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말을 의례적으로 반복하거나, 우루과이가 축구 역사에 남긴 공적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아메리카의 남쪽에 과라니 어로 ‘새들의 강’을 뜻하는 ‘우루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음을 알리려 한다.

우루과이동방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우루과이의 공식 명칭)은 작은 국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다채로운 인종분포의 현실과는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국가적 특징을 보이며 두 개의 거대한 국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3백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약 176,000km²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질적인 인종적 구성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계와 이탈리아계) 유럽이민자의 후손에서 기인하며, 아프리카계 흑인과 메스티

소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토착 원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3년 전인 2009년 10월에 행해진 대통령선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루과이의 역사적 흐름이 자아낸 정치적 특징과 정세에 대한 전후 설명이 필요하다.

독립의 쟁취와 1830년의 헌법제정과 함께 국가가 탄생하고, 12년 동안의 군사독재시기(1973~1985)와 이행기를 거쳐 민주주의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우루과이 국민은 국가의 정치적 의제에 전투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이것이 우루과이의 정치적 실천, 정당제도의 확고함과 안정, 정당과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결정한 요소였다.

우루과이의 정당제도는 국가의 탄생과 함께 출현하여 대략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정당인 ‘콜로라도 당’과 ‘국민당’에 집중되었다. 이 두 정당을 흔히 ‘콜로라도 당’(赤黨)과 ‘블란코 당’(白黨)이라고 부른다. 양당은 1810년부터 1830년까지 벌어진 독립투쟁에서 탄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은 독립전쟁을 이끈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루과이는 역사적으로 양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다. 즉, 우루과이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두 정당의 이념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민당은 덜 도시화되고 더 보수적인 내륙지역을 대표하는 데 반해, 콜로라도 당은 사회적, 경제적 현안에서 더 자유주의적이고 세계주의적이며 개혁적인 사상을 대변하였다. 역사적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이 두 거대 정당, 즉 콜로라도 당과 국민당이 선거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투표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당제 파노라마는 1971년 선거에서 중도좌파연합인 광역전선(Frente Amplio)이 등장하여 18.3%의 투표율을 획득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광역전선은 우파 성향의 전통적인 정당에 대항하는 여러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통합한 좌파연합이다. 출범 이후 다섯 번의 선거—1971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9년(중간에 독재기간 동안 선거 중단)—를 거치는 동안 광역전선은 국민당과 콜로라도 당 정부에 대한



타바레 바스케스 전 대통령(재임: 2005~2010)

불만을 결집하며 국민의 지지를 서서히 얻었고, 결국 2004년 선거에서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우루과이의 정치무대에서 진정한 변화를 구체화시킨 결정적인 단절은 (이 지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2004년 대선에서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 후보와 로돌포 닐 노보아 부대통령 후보라는 조합이 승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대선에서 광역전선은 1차 투표에서 50.45%의 과반수 득표율로 승리하였다. 이렇게 광역전선은 전통적인 정당의 대통령직 나눠먹기 전통을 깨며 야당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광역전선이 최초로 여당이 된 2005년 3월 1일 이후 좌파연합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7년의 집권 기간 동안 광역전선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떠안으면서 변신해야 했다. 과거에 투쟁과 저항 속에서 단련시킨 이상과 국가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다양한 좌파적 이데올로기 흐름이 한데 모인 연합정당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절해야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당제 국가 우루과이

앞서 언급했듯이, 2004년 대선에서 광역전선의 승리는 정치에서 다당제의 서막을 알렸다. 그리고 이 체제는 호세 무히카와 다닐로 아스토리가 러닝메이트로 나선 최근의 2009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의 연속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여건을 조성하였다. 한편, 광역전선의 두 번째 승리는 1기 광역전선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프로그램의 지속을 보장하였다.

우루과이의 대통령선거 과정은 두 단계의 투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투표가 실시된다. 2009년 6월 28일에 치러진 첫 번째 투표는 정당 수준에서 실시되며 투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러한 선거는 ‘당내 경선’이라 부른다. 이어지는 두 번째 투표는 10월 25일에 실시되었으며 의무 선거였다. 이를 보통 ‘대선 1차 투표’라고 부르는데,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공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009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4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국민당의 루이스 알베르토 라칼레, 광역전선의 호세 무히카, 콜로라도 당의 페드로 보르다베리, 독립당의 파블로 미에레스였다.

1차 투표 결과, 어느 정당도 투표율의 절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며, 이를 ‘대선 2차 투표’ 또는 ‘결선투표’(balotaje)라고 부른다. 세 번째 투표 단계는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정당의 후보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3위 이하의 후보는 제외된다. 가장 최근의 대선은 2차 투표까지 가야했는데, 11월 29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광역전선 후보가 유효 투표에서 총 52.39%를 득표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 선거 승리로 호세 무히카(흔히 ‘페페 무히카’라고 부른다)는 같은 광역전선의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의 우루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새로운 정치무대에서 이번 승리는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



호세 무히카(좌)와 타바레 바스케스(우)

로 좌파 대통령 당선자 간의 권력이양을 이룬 것이었다. 2009년 대선 승리의 순간 아직 현직에 있던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광역전선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광역전선의 연속 집권을 환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승리했고, 이 정부가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이양은 동시에 전통적인 정당 헤게모니의 파괴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10월에 시행된 1차 투표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광역전선이 총투표수(백지표 및 무효표 포함)의 48%를 획득하였고, 국민당은 29.4%로 2위를, 콜로라도 당은 17.5%로 3위를 차지하였다.

호세 무히카는 누구인가?

2010년 3월 1일 우루과이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무히카는 최고통치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초반에 언급

한 우루과이의 국가적 특성이 반영되고 또 이를 강화한 인물이다. 동료들이 붙여주었고, 현재 우루과이의 대다수 국민이 부르는 ‘페페’라는 이름이 삶의 이력을 증언한다. 무히카는 우루과이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팍아마루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이름의 게릴라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의 암흑기 동안 모든 정치범이 겪어만 했던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14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현재 무히카는 가장 적은 봉급을 받는 대통령 또는 최근 해외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다. 이는 우루과이의 적은 예산 때문이 아니라 무히카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월급은 250,000페소(약 9,700유로 상당)를 받고 있지만, 그 중 90%를 사회구호단체에 기부한다. 그리고 남은 20,000페소(약 800유로 상당)를 가지고 평생 살아 온 작은 시골집에서 살고 있다. 그에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으면, 무히카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해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많은 우루과이 국민이 있습니다.”

과거의 투쟁적인 삶, 현재의 훌륭한 행동으로 존경을 받는 무히카는 독재 이후 사회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용서와 평화를 함께 주장한다. 단 정치 앓은 외모, 말을 잘하면서도 때때로 모순도 보이는 이 광역전선 소속 대통령은 74세의 나이에 온갖 감동을 자아내는 이상과 열정으로 무장한 채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였다. 구식 폭스바겐 자동차로 몬테비데오의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손수 땅을 일구는 가장 소박한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몬테비데오 외곽의 작은 시골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대통령 수락 연설은 단결, 평화, 화합을 강조하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는 역사적인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전통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향해 “우리는 슬픔을 함께 하는 동포이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점은 광역전선의 이 두 번째 집권

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근 수십 년 간 라틴아메리카 정세 속에서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전문 정치인을 대체한 대중적 지도자들—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보통 국민이다—이 수립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무히카가 모델로 삼아 항상 닮고자 한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정형화된 인물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대통령 후보였다. 각자 정치 패러다임과 통치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 추세를 대변하면서, 그들보다 앞서 나라를 통치한 전통 정당의 기획을 폐기하였다.

[황미선 옮김]

파올라 가요(Paola Gallo) -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젊은 시인으로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초대되었고, 우루과이 문예지 《아소테아》에서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2011년 시집 『유해동물』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다.
 황미선 -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UCM) 박사과정 재학.